

신안 자은면 기름 유출 피해 현장 르포

“타르 피해 보상도 못 받았는데...”

주민들 밀려오는 흡착포 줍기 안간힘  
해수욕장 잇단 예약 취소에 한숨만...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보상도 안 끝났는데, 또 기름띠라니...”  
5일 오후 신안군 자은면 둔장해수욕장. 검은 기름을 한껏 머금은 흡착포들이 해변 여기저기 널려있다. 기름띠가 밀려온 해안가는 마치 검은 조약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자은면 북방 4.5km 해상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였지만 파도는 아직도 얇은 기름띠를 해안가로 밀어내고 있었다. 지난 8개월 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기름띠어리’와 ‘기름띠’라는 차이 뿐. 해안가에 땀도는 약취도 당시와 같았다.

은 전복과 백합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최근 30ha에 이르는 양식장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종패를 뿌린지 4년째가 되는 내년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고 전복과 백합을 마음껏 캐낼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을 구상하고 공동양식장을 만들었지만, 전복과 백합이 내년까지 살아남아 줄 지도의 문이다.  
이곳과 불과 5~6km 떨어진 백길해수욕장의 사정은 완전히 판관이였다. 확산지역이 넓지 않은 탓에 기름 피해를 입지 않은 이곳 주민들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것을 걱정했다.  
타르 피해로 관광객이 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기름 피해가 인륜에 보도되고 나서부터 물거품이 됐다.  
최영배 백길수상래저 대표는 “백길해수욕장 등 대부분의 서남해안 해수욕장은 기름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나흘 전부터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름피해보다 관광객들의 외면이 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나흘째인 5일 오후 신안군 자은면 둔장해수욕장에서 마을주민들이 파도에 밀려온 흡착포를 걷어내고 있다.

만조 때라 기름 방제작업을 하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200여명마저 떠난 해변에는 마을주민 몇몇이 남아 파도에 밀려오는 흡착포를 줍고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두 번이나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다니요” 망연자실하게 먼 바다를 바라보던 강세원(52·자은면 둔장리) 이장이 팔문을 열었다.

그는 “둔장마을처럼 굴과 낙지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맨손어업종사자들에게 기름피해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지난 타르 피해 당시 마을 공동양식장에서 2~3t 가량의 전복과 백합이 폐사했었는데, 이번엔 얼마나 피해를 줄지 노심조사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둔장마을 주민들이 타르피해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당시 피해가 워낙 컸던 데다, 아직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1가구 가운데 13가구만이 170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타르 피해로 인해 3년간 굴과 낙지잡이가 제한되면서 생계는 막막해졌는데 보상은 더디기만 했다.  
“열린 데 닫힌 꼴”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이 둔장 앞바다에 뿌려놓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름띠 대부분 제거...해경 유출량 재조사키로

신안군 자은도 해상 기름유출 사고 나흘째인 5일 사고로 흘러나온 병커C유가 파도를 타고 비금도를 비롯한 인근 해수욕장과 섬들로 흘러들고 있지만 양이 현저히 줄어든 등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목포 해경은 이날 사고 해역의 기름띠를 모두 제거한 뒤, 이동방제 체제로 전환해 해상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와 해경·신안군 등은 이날

방제인력 1천527명과 선박 54척, 차량 27대 등을 동원해 중도 우전해수욕장과 자은 백길해수욕장 등에서 기름 찌꺼기 제거작업을 벌였다.  
현재까지 기름 찌꺼기가 발견된 곳은 지도·중도·임자도·자은도·비금도 등 5개 읍·면 7개 지역이다.  
수산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신안군 둔장리 전복양식장과 방축리 백합·고막양식장 등 일부에서 소량이나마 기름띠가

가 발견됨에 따라 어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는 새우잡이와 민어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여서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목포해경은 어민들이 당초 발표한 양(2kg)보다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사고 선박이 6일 목포항에 입항하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

방과후 학교 만족도  
광주-전남 큰 격차

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고육비 절감 등을 위해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도·농간 큰 차이를 드러냈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도 상반기 방과후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광주 학생들의 58.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반면, 전남에서는 79%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도 광주 56.6%, 전남 82%를 기록했다.

실력향상이나 소질개발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광주 학생 57.6%, 전남 학생 80%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으며, 학부모들도 광주 53.4%, 전남 8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성필기자 camus@

Weather forecast for Jeonnam and Jeonbuk regions. Includes a map of the region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cities like Gwangju, Jeonju, and Jeonju.

전남대·조선대·순천대·동신대 5개 누리사업단  
우수 사업단 선정 인센티브 받아

전남대와 조선대, 순천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 4개 대학 5개 누리(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사업단이 우수한 결과를 내 인센티브로 11억여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누리사업 2008년도 연차평가’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체 141개 누리사업단 중 지난 2004~2007년(상반기)에 선정된 12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나머지 13개 사업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선정된 곳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남대 광·전

자 부품산업 인력양성 사업단(3억1천만원), 전남대 전자정보가전 인력양성 사업단(3억200만원), 조선대 첨단부품소재 전문 인력양성 사업단(1억9천300만원), 순천대 기계·우주항공 전문 인력양성 사업단(2억7천900만원), 동신대 농어촌 건강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사업단(4천500만원) 등 전국 21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돼 30억여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 중 1개는 선정이 취소되고, 48개는 사업비가 삭감된다. 전주교대는 교원확보율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단 선정이 취

전남대 ‘금호연구관’ 개관

전남대가 금호석유화학(주)과 공동 운영 중인 금호생명과학연구소(소장 김수영) 전용관이 6일 오후 3시30분 개관식을 갖는다.  
전남대 대학본부와 봉지 사이에 위치한 ‘금호연구관’ <사진>은 학교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49억원, 24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착공했다. 6천612㎡, 4층 규모의 건물에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특수배양실, 교수연구실, 공동기기실, 회의실 등이 마련됐다.



금호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1995년 광주과학기술원 개원과 함께 금호그룹과 박성용 명예회장이 설립한 식물전 문연구소로, 올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전남대로 이전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jeom' (대리점) featuring various food products and a large image of a food processing machine. Text includes '대리점 모집' and '식품제조기'.

Advertisement for 'Elysia' (엘리시아)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엘리시아 상품권 이용안내'. Includes a phone number 0621-671-1199.